

The 林

이윤희무용단 010-9392-3544 ※ 본 프로그램은 초대장을 미신합니다.

The 林

2010년 3월 27일(토) pm 5:00

민주공원 소극장

주최 : The 林 이윤희무용단

후원 : 또.따.또.가 예술트레이닝 센터

The 林

춘앵전

청나라 강희제 때 편찬된 「연감유암」에 의하면 춘앵은 당나라 고종이 이른 아침에 멀리서 들려오는 짝소리 듣고 백명달에게 전하여 작곡한 곡이라 한다. 우리나라 춘앵전은 이러한 내용을 인용하여 조선조 순조 때 효명세자(익종)가 순종 숙황후의 보령 40세를 경축하기 위해 새로이 지은 향악정제이다.

대금산조

이 춤은 산조음악에 맞추어 추는 실내음악의 춤으로 그 음악이 우조와 평조, 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엿박의 묘미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춤사위 역시 우조의 편안함과 평조의 안정감, 계면조의 섬세한 맛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그 특징이다.

특별출연 대금_한영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 장고_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독주 비익련리(比翼連里)

특별출연 해금_방병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신디사이저_김병석(진주시립국악단 단원)

살풀이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은 원래 흥살은 미리 피하도록 하는 살풀이굿에서 무당이 살풀이 음악에 맞추어 추던 무무(巫舞)에서 파생되었으나, 이것이 후에 전통 속에서 길러지고 가꾸어지는 과정을 통해 민속춤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살풀이춤은 고도로 다듬어진 전형적인 지방예술로서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느낌을 주는 춤이다. 특히 정적미의 단아한 멋과 함께 정과 한이 서린 비장미가 몸에 스며있다.

소고춤

소고춤은 풍물굿에서 소고쟁이가 나와서 온갖 솜씨를 보이는 놀이로 오랜 세월 동안 서민에게 사랑받았던 민속무용이다. 태평소와 사물장단에 소고를 치며 추는 이 춤은 춤사위가 아주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흥겨운 풍물굿과 채상모놀이를 시작으로 앞마당을 연 후에 굿거리, 자진모리, 동살풀이, 휘모리장단으로 신명을 더한다.

특별출연 “버습새” 예술단

